

일주문



소년가장팀에 500만원
법타 평불협 회장은 3월 17일 통일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금 중 5백만원을 조계종 포교사단 소년소녀가장팀에 전달했다.



강원 경승단 현판식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3월 27일 춘천 삼문사에서 강원경찰청 경승단 현판식을 가졌다.



청주불교방송국 시정
현충 서울 보승사 주지는 3월 11일 열린 청주불교방송 이사장단 회의에서 청주불교방송 신인사장으로 선임됐다.



삼문사 대웅전 낙성법회
세운 대전 삼문사 주지는 삼문사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집안법회를 11일 오전 10시 봉행했다. 042823-0332



감사위원회 임명
노숙성 한국공무원봉사연합회장은 3월 26일 감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제6회 개인전 열어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은 3월 27일~4월 2일 서울 인사동 단선갤러리에서 제6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노인들 꿈과 기쁨주는 공간으로”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 명관 스님



일체의 사회활동을 접었던 스님이 새로운 각오와 의욕으로 복지활동을 재개한 것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수탁이 석남사로 결정됐기 때문.
“석남사가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큰 힘이 된다”는 스님은 “요양원 운영은 석남사 대중스님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이며 복지나 의료분야를 공부한 스님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남사 대중 봉사활동 적극 동참

“노인들이 바로 석가와 미륵이라는 생각으로 성심 성의껏 공양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땅히 공양 받으실 권리가 있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개원한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원장인 명관스님(사진)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노인들의 안식처로 꿈과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관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요양원에 머물며 직접 시설 미비점 보완을 비롯한 개인 준비를 꼼꼼히 챙겨 온 스님은 85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음 “정도로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한때 장애아동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활동하다

요양원에서 숙식하며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까지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스님은 직원들에게 “내 부모님이 섬길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

요양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문화체험,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자원봉사자 및 물품 후원, 결연 후원을 위한 후원회를 모집 중이다. 재가노인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구상 중인 스님은 “노인요양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시설을 개방,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한국비구니 위상·수행 알릴터”

미국 조지아대서 강연 해원 스님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해원 스님(사진)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대학 동양학연구소의 초청으로 3일 조지아대학 아카데미 홀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과 그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내용은 비구니스님의 수행의 과정과 그 의미로, 특히 수행상에서의 비구니스님의 위상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지아대학 동양학연구소는

세계 동양학회에서도 강연

매년 종교, 사회,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종교인들을 한명씩 초청해 강의를 듣고 있다. 근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초청강연을 가졌고, 이러한 계기로 그들은 불교수행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알리게 된 해원 스님은 강연자로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강연대상이 조지아대학이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영예로운 학생’이고 동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학생들이 영상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 비구니 수행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 강연 발제문과 더불어 비구니스님의 출가(행자 교육원 생활), 득도(사미니계, 식차마니니계, 구족계 수지 모습), 교육(강원 생활), 수행(선원 생활)로 나누어 출가에서 수행과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초청 강연 이후, 스님은 4월 4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4회 세계동양학회(AAS)에 참석한다. 세계동양학회는 참가 학자만 천여명이 넘고 관련분과도 200여개에 달한다. 또한 스님은 ‘종교와 수행’을 주제로 한 분과에 참석해 ‘한국비구니 수행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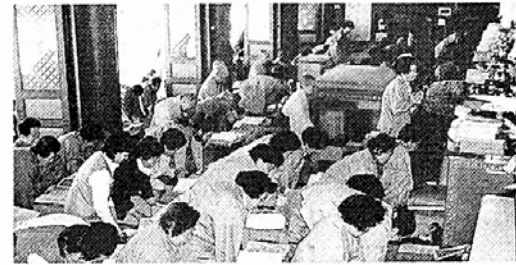
실천불교승가회 고승명인 도예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최화)는 3월27일~4월2일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고승명인 서화도예전’을 개최했다. 27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실천승가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불교NGO 회원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왼쪽부터 최화, 법장 스님, 다섯 번째가 정대스님.



원용종 창종 22주년 기념법회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창종 2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미륵선종 종정 법수 스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겨, 월드컵이 세계사람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설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은 사람 중 왼쪽에서 네번째가 일공 스님.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은 3월 23~27일 제51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했다. 혜총 스님은 “참회는 개인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참회는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가꾸는 노력이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다”고 법문했다. 사진은 감로사 대웅전에서 3천배 기도 중인 불자들.



능인선원·행원불교대 입학식

대구 능인선원(학장 혜강)은 3월 24일 2층 법당에서 제1기 행원불교대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혜강 스님은 “진정한 대중불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혜강 스님.

“관내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

개관 1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



“센터로서 역할을 다지기 위해 서울 관내 노인복지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인문제를 사회화,여론화할 수 있도록 기획연구와 조사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3월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사진)은 개관 1주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달아달아 마음 달아’란 주제로 ‘어울림 등 축제’ 등의 개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리이용 원칙에 따라 현재 이용회원만 1만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지완 스님은 “무료급식소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센터의 정체성 확립의 해’로 정한 스님은 “한국 노인문화를 선도하고, 불교 이념에 맞는 불교사회복지의 구현이 센터 사업의 핵심 기조”라며 5월부터 노인 자활 사업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향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비롯, 이웃과 후손을 위한 생명나눔운동, ‘노인이용시설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또한 ‘센터 전체 예산 중 어르신들 무료급식 비용이 25%를 넘는다’며 “적극적인 후원자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청소년 포교 아이디어뱅크 구실”

청소년문화연구소장 김형중 교법사

“교육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소가 청소년 문화포교의 아이디어뱅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반 교사와 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3월 18일 파라미터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신인소장을 맡은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사진)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교과서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한번도 불교관련 내용들의 분석 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조계종 포교원 불교교과서 문제위원회와 전국교사불자회 등과 공동

으로 들어가는 교과서 분석 작업을 첫 사업으로 손꼽았다. 또 김 법사는 최근 들어 수능 언어와 사회탐구 영역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불교설화나 경전이야기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 자료집으로 묶어 학생회를 운영하는 전국 사찰에 보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원폭력과 인터넷 중독 등

이런 문제를 풀어안는 불교상담 활동추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별 불교 성구(聖句) 모음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또 “교법사 중심의 연구소를 일반 교사불자까지 참여범위를 넓혀, 매일 열리고 있는 세미나가 폭넓은 청소년 연구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들을 풀어안는 불교상담 활동추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별 불교 성구(聖句) 모음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또 “교법사 중심의 연구소를 일반 교사불자까지 참여범위를 넓혀, 매일 열리고 있는 세미나가 폭넓은 청소년 연구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중요

이런 문제를 풀어안는 불교상담 활동추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별 불교 성구(聖句) 모음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통도사 승가대학 강원 학인모집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에서는 수많은 고승석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편입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학과 : 지문과 : 00명 · 사집과 : 00명 · 사교과 : 00명

※ 편입학,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지참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중양병원발급) 5. 은사스님추천서(각 2부) 6. 사진 4매(사미의계 대가사 복장) 7. 입학금(지적스님께 문의바람)

■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2년 양력 3월 22일 ~ 4월 17일까지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접수 당일날

■ 22기 행자교육 수료자
· 서류접수 : 2002년 양력 4월 11일 ~ 4월 22일까지
· 면 접 : 서류접수 당일날

■ 문의처
(055) 383-2363(강원, 강로당) 382-7182(중무소 교무국) 384-2035(지적스님, 원통방)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현문 강주 중산 혜남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모집학과 (Admission Department) and 준비물 (Materials). Rows include 지문반 (00명), 사집반 (0명), 입학원서, 승적증명서, 건강진단서, etc.

문의처 ● 전화 055)931-1016, 1017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세민·학장 정혜지오